

“3조 투입, 일자리 2.4만개 창출... 역내 매출 38조로”

미래 먹거리 찾아나선 이용섭 광주시장의 100일

광주광역시 민선 7기 이용섭 시장 출범 100일을 맞아 광주의 미래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광주시는 지난 8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5개 자치구, 기업, 혁신도시 이전기관, 대학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략산업 분야 혁신성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시했다.

전략산업 육성계획은 광주시가 지역 유관 연구기관, 자치구, 대학 등과 함께 산업별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산업 혁신성장 협의회와 산학연 협의회 의견을 수렴해 확정됐다.

이번 계획에는 대내외 환경과 국가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지역 산업경제 현황과 구조를 분석해 지역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8대 산업·34개 전략·98개 과제 전략산업 육성계획 방안 제시

자동차산업, 완성차공장 유치 추진 “일자리 찾아 돌아오는 광주 만들 것”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자동차산업 ▲가전산업 ▲광산업 ▲에너지산업 ▲의료산업 ▲뿌리산업 ▲ICT융합 ▲공기산업 등 8대 산업, 34개 전략, 9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광주시는 민선 7기 동안 2조9000억원을 투입해 총 매출액을 37조7000억원까지 늘리고 신규 고용을 2만3800여 명 창출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사업별로는 자동차산업은 '자동차산업 서해안 벨트 및 수출 허브도시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친환경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완성차 공장 유치'를 추진,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다.

가전산업은 이중 간 협업을 통해 스마트가전산업을 발전시키고, 'AI와 융합기술 개발' 등 특화분야 혁신기반 확대 및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에너지산업은 빛가람혁신도시의 에너지 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 특화산업 조성'을 추진한다. 더불어 한전공대 설립 등을 계기로 광주를 에너지신산업 메카로 발돋움 시킨다.

의료산업은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에 발맞춰 '한국치의학연구원 유치', '안과/광학 의료기기 글로벌화 지원' 등을 실시해 광주시 의료산업 규모 확대, 경쟁력 구축을 꾀한다.

뿌리산업은 기존 재래 생산방식을 탈피한 '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정기술 개발'과 '기존 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고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ICT산업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 조성'과 '인공지능 창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역량 확보에 나선다.

공기산업의 경우 '공기산업진흥원, 성

능실증센터 설립'과 '공기산업 사업화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해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운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전략산업 비전 선포는 광주의 미래먹거리와 일자리 등의 비전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며 "지난 1일 발표한 민선 7기 일자리 10만개를 만들 일자리 로드맵과 함께 병행해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광주에서 일자리를 찾아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으로 기업, 대학, 전문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정책에 공동 대응해 산업별 육성 전략을 보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매월 '전략산업 분야 혁신성장 협의회' 기획 책임자 회의를 개최해 신산업 추가 발굴 및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광주=오종일 기자 raser506@metroseoul.co.kr

장흥군 “바다낚시꾼 회진면 앞바다로 모여라”

14일 장흥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

바다 낚시인들의 심장을 뛰게 할 '2018 장흥군수배 정남진 전국 바다낚시대회'가 오는 14일 장흥군 회진면 앞바다에서 개최된다.

장흥군 회진면 앞바다는 40~50cm 크기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 감성돔 서식지로 알려져 있으며 올해 대회는 장흥군과 장흥군체육회, 한국낚시방송사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바다낚시대회에는 전국 200여명의 강태공과, 중국 베이징에서 10여명의 낚시꾼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국내는 물론 중국 낚시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장흥=위지훈 기자 jh2255@



장흥군 회진면 앞바다.

/장흥군

광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전국 1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0명 합동단속·예방 대책 등 효과

광주광역시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9월 말 기준)이 전년 대비 40.7%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국도교통부와 경찰청에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을 집계한 결과, 전국 사망자수는 지난해보다 8.5% 감소한 2773명이었다.

지자체별 감소율은 광주가 가장 높았으며 강원(-21.1%), 제주(-16.1%), 경기(-15.4%), 전북(-13.1%) 순이었다.

광주의 경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난해보다 42.3% 감소했으며,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와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각각 28.9%, 60.0% 감소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명이었지만, 올해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올해 초부터 자치구, 경찰, 교육청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팀을 구성해 합동단속,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등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한 것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58%에 달하자 경찰청 분석자료를 활용해 무단횡단이 잦은 20여 곳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신호 등 표준모형을 보급하는 등 교통안전시

설을 보강했다.

또 자치구, 경찰과 협업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소화전 등 6곳을 선정,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 집중단속과 교통사고 예방순찰을 수시로 실시했다.

이 밖에도 영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택시·버스·화물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해 안전운행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운전원 자격여부도 상시 점검했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전국 최고의 교통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오종일 기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 설문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는 10일부터 23일까지 시민 2천500명을 상대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에 대해 1차 표본(설문)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주민등록지가 광주에 있고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시민을 대상으로 유·무선(062-268-0581)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찬반, 찬반 이유, 1박 2

일 속의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묻는다.

숙의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 가운데 찬반여부와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종합 고려, 오는 26일까지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시민참여단은 다음달 9~10일 숙의 과정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광주시에 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1차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참여단 의견을 토대로 건립 여부를 결정한다.

/광주=오종일 기자

완도군 美 현지서 700만불 수산물 수출 성과

해외시장개척단 LA 수출상담회 참가

완도군은 해외시장개척단이 미국 LA 현지에서 전복,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가공품 700만 불 어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해외시장개척단은 완도군 4명, 완도식품수출협회 수출기업 7명이 참여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당초 참가하기로 하였으나 태풍 북상으로 안전 점검 및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해 일정을 취소했다.

지난 4~5일 이틀간 진행된 수출 상담

회에서는 미국, 캐나다 수산관련 단체 및 바이어를 초청해 완도군 유망 수출 업체와 현지 바이어 1대1 매칭 수출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10월 4일 바이어 및 LA 현지 언론인들을 초청해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군을 소개하고 완도산 수산물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완도군의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수출 상담이 본격 진행되면서 각 업체별 업무 협약 및



계약 체결이 하나 둘씩 이어졌다.

전체 수출 규모는 700만 달러이다. 다시마 전복염여조합법인(2건·200만 달러), 완도바다식품(100만 달러), 청산바다(100만 달러), 흥일식품(2건·200만 달러), 하나물산(100만 달러) 등이다.

/전남 완도=이제건 기자 wando1106@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5 | 해질 / 18:03

10월

10일(수)

음력 : 9월 2일

수도권 날씨

15~12°C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광주광역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교통사고 취약지역·갓길 위주

광주광역시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 달간 자치구, 경찰청,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밤샘주차 관련 민원 다발지역과 교통사고 취약지역 위주

로 실시한다. 특히 법정 차고지 외 아파트, 심야시간대 교통량이 많고 사람 통행이 잦은 주거 밀집지역, 도로 갓길,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좁은 2차선 도로 등을 집중 단속한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관계법령상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적발된 차량

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 관외 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에 이첩해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화물차 주차난 완화를 위해 전곡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430면 주차)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평동3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273면 주차) 조성공사를 하고 있으며, 첨단3지구에도 추가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오종일 기자